

2025 08

통권 304호

티오크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신현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낸곳 천주교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김홍식 요한
(하망동 본당 만남의 집 봉사자)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요기 1.21)

성경 말씀은 휴천동 본당 한도형 루피노님께서 자필로 써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형제님이 적어주신 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자주 묻 습니다. "하느님,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 은 이 질문에 즉각적인 해답을 주기보다, 그 물음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마음을 가르 쳐 줍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심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피해와 위험

15. 지구 해양 온도의 상승, 산성화와 산소 농도 감소와 같이 기후 위기를 드러내는 몇 가지 징후들은 이미 앞으로 최소 수백 년 동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양의 물은 열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온도와 염도를 정상화하려면 수 세기가 걸립니다. 이는 많은 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이 지구의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 여정의 동반자로 존재하기를 그치고 우리의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의 많은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16. 대륙 빙하의 감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일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후와 관련해서는, 그 변화를 발생시킨 사건들과는 별개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일으킨 막대한 피해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비극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동교구 설정 배경과 그 과정”(1)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11년 한국천주교회는 조선교구에서 경성(서울)교구와 대구교구로 분리 설정되었다. 경성교구는 경기도 이북 지역을, 대구교구는 그 이남 지역을 관할 하였다. 따라서 안동교구는 당연히 대구교구 관할 아래로 들어갔으며, 1958년에 설립된 안동 감목대리구 역시 당연히 대구교구의 관할 아래에서의 감목대리구였다.

1950년 6.25 남북전쟁 당시 대구교구 소속 본당은 26개였는데, 그 가운데 20여 개의 본당이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당장 시급히 복구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복구과정을 통한 교회의 대사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레지오마리아의 한국도입 등으로 자연스럽게 교회의 열심한 선교활동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급격히 증가한 신자들을 사목할 많은 교회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대구교구에서는 1954년에 경남감목대리구를 설립하고, 이어서 1957년에 부산교구를 설립하여 경남지방을 사목하게 하였다. 경북지역에서도 1953년 칠곡 왜관에 본부를 둔 왜관감목대리구를 설립하여 6.25 전쟁 중에 북한의 함흥에서 피난 내려온 베네딕도회 신부들에게 경상북도 서북부지방인 상주. 문경. 김천. 금릉. 선산. 성주. 칠곡지역의 사목을 위임하였다. 또 1958년도에는 1948년 충남지목구 설립으로 인해 충남지방으로 떠났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사제들을 다시 초빙하여 안동감목대리구를 설립하고, 경북지방의 동북부인 안동. 영주. 영양. 봉화. 예천. 영덕. 영일. 포항. 청송지역의 사목을 위임하였다.

각 지방마다 포교 활동이 활발해지고, 새로 본당을 설립함에 따라 대구교구 서정길 주교는 1966년도 경북 북부지방을 사목할 새 교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안동교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1966년 청송본당 봉헌식을 집전한 서정길 주교는 당시 안동 감목대리구장인 구인덕 신부에게 안동교구 설정을 위한 서류를 교황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초대주교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의견을 전하였다. 그는 한국 주재 교황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황청에 새 교구 설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는 서정길 대주교의 빠른 시일 내에 새 교구 설립을 추진해 내기 위한 개인적인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 사제들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1825년, 사제 파견을 요청하는 한국인 교우들의 편지를 접한 교황 레오 12세는 1827년 9월 1일에 파리외방전교회에 선교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상 즉시 조선으로 파견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1831년 9월 9일 그리고리오 16세 교황이 조선대목구를 설정하고, 초대 교구장으로 브뤼기에르 주교를 임명하였다. 이후 1836년 모방(Maubant, 羅) 신부, 1837년에 2대 조선 대목인 앵베르(Imbert, 范) 주교와 샤스탕(Chastan, 鄭) 신부가 입국하였다. 또한 선교사들은 파리외방전교회의 본래 목적에 따라 곧 소년 3명을 선발하여 마카오에 보내 사제 양성 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1845년엔 최초의 한국인 사제로 김대건 안드레아신부를, 1849년에는 2번째 한국인 사제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배출했다.

이로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마침내 안동교구 설정 과정 안에서 안동감목대리구를 위탁받고 경상북도 북부지방인 신설 교구로서 현재의 안동교구를 교구의 반열에 올리는데 그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길

안동교구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대표 봉사자
송현동 본당 김아름 안나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 예로니모)

이 말씀은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배우며 그분과 일치하는 길임을 일깨워 줍니다.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은 청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공부를 넘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서모임은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사도행전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으며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서 깨달은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봉사자는 말씀 안에서 깊이 지도록 돕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이끍니다. 한 과정을 마치면 3박 4일간의 연수에 참여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우며 봉사자로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와 많은 봉사자도 이 과정을 거쳐 그룹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교구청 청년 담당 신부님의 권유로 성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룹 모임이 즐거워서 참여했지만, 바쁜 생활과 “굳이 힘들게 연수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배 봉사자들의 권유와 매주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석만 하는 제 신앙생활을 반성하며 2018년 창세기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연수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연수생들과의

나눔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때를 계기로 그룹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줌을 통해 모임을 이어가며 말씀 안에서 삶의 어려움과 신앙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모임은 모두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다고 기억됩니다.

저는 성서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이끄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 기쁨과 평화를 나누게 됨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청년성서모임에 관심과 기도를 보내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청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치료법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주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씩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해봐도 딱히 드러나는 병명은 없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괴롭다면 신체기능의 균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자율신경실조증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기능이 항진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긴장되고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한다. 이럴 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여 긴장을 풀고 이완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호흡, 맥박, 혈압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나타난다. 목 어깨가 굳어져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며 온 몸이 다 아프고 기운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힘들 정도로 기진맥진해 만사가 귀찮아 진다.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낫지 않는다.

자율신경실조증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변 환경을 개선하면서 자가 치료로 이겨내야 한다. 기도와 성실한 일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면 언젠가는 낫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유 없이 불안한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아주 쉬우면서도 간단한 방법이다. 자율신경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대개 흥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 muscle)이 긴장되어 있는데 이 근육은 귀 뒤쪽 유양돌기에서 시작하여 쇄골로 이어진 목빗근이다. 경추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근육으로 목을 옆으로 돌렸을 때 도드라지게 튀어 나온다. 이 흉쇄유돌근에는 경동맥과 미주신경이 지나가고 수많은 림프절이 있는데 흉쇄유돌근이 경직되면 경동맥이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눈도 뻑뻑해진다. 또한 미주신경(vagus nerve) 이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면증도 생기는 데 이럴 때 흉쇄유돌근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잡고서 마사지하듯 서서히 주물러서 경직된 것을 풀어주면 좋다.

이때 주의할 점은 힘을 빼고 살살 눌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너무 강하게 근육을 압박하거나 주무르면 경동맥이 눌러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어지러워지고 오히려 림프 순환이 막힐 수 있다. 특히 미주신경성 실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하루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가 살짝 밀릴 정도로 흉쇄유돌근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 가볍게 마사지 해주자. 그러면 경동맥이 열려 닫힌 뇌로 혈류가 증가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환해지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잠도 잘 자게 된다. 동시에 어깨근육이 뭉친 것도 풀어주면서 척추를 따라 평행하게 있는 배수혈(背俞穴)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지압해주면 가벼운 자율신경실조증은 나아진다. 쉬우니까 한 번 따라 해보시라.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제대로 보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지녔다고 할 수는 없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는 순간 갖게 된 ‘열린 눈’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 또 다른 체험이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바오로가 개종 이후 다시 보게 된 것도 그전에 보았던 것과 매우 다른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거나 개종할 때 체험하는 것은 그전에 볼 수 없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 새롭게 보며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는 모습을 일컬어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했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스토토모 주교 지음

문경 본당 신현공소

Q : 신현공소의 기억나는 일들이나 자랑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우리 공소는 서울에서 은퇴하시고 이곳에 오신 신부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미사와 전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소 건축물을 보수하고 가꾸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십사 처도 깔끔하게 만드셨고 바닥도 정말 깨끗합니다. 아마 우리 공소 같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소는 없을 겁니다

교우 2 : 이 건물이 예전에 마성 면사무소 건물이었는데 옛날에 독일 신부님이 계실 때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다른 공소에 비해 기본적으로 건물이 깔끔한 편입니다. 과거에는 신자 수가 많았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지금은 점점 줄어 15명 정도 나오시는데 공소를 잘 지키고 다듬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성당을 아마 끝까지 잘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Q : 신현공소에도 귀농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자로서 어떻게 융화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우 2 : 저는 2015년도에 귀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바쁘게 살면서 성당에 가는 것도 잊은체 2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 주민들과 부대끼는 일들이 생겨서 여기를 떠나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졌을 때 성당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과 상담을 하고 성사도 보고 하면서 문경성당에 다니다가 신부님이 공소 식구면 공소로 가라고 하셔서 신현공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공소라는 개념조차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참 따뜻하게 받아주시고요. 정말로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저는 사랑만 받고 지금은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어요.

특히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님 같은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아침에 일찍 지팡이 짚고 오셔서 폴도 뽑으시며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뿌리를 못 내리는 신앙인데 저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른 새벽 미사에 오시는 것을 보면 신



앙의 뿌리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을 하고 공소에 나와 가장 크게 배운 것이 깊은 신앙심입니다.

교우 3 : 이 마을의 40,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 공소가 어렸을 때 놀이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소가 이 마을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위치입니다. 성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마을 중앙은 정신적으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에 우리 공소는 이 마을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우 4 : 사실 예전에는 신자 수가 많아 레지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15명 정도여서 둘로 나누자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아 단원이 7명 정도입니다. 단원 중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현재 레지오는 2070차입니다.

Q : 오늘은 특별히 서울 교구에서 교우들이 신현 공소로 봉사를 오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현 공소에 와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서울 신자 : 저희는 원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례 성모승천성당 성가대를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데요. 성당 밖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성가대 없는 성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처럼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방문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성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현 공소가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여러장 찍어 담았습니다. 건물을 보면 그 건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얼굴도 함께 보이는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많은 기쁨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82항-189항

- 182항 특혜를 통하여 특정 계획의 실제적 환경 영향을 ()하는 부패는 흔히 정보 제공의 의무와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모호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 183항 가. () 평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제적 방식으로 투명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 ()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측면과 여러 위험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84항 예측하지 못한 소음공해, 조망권 침해, 문화적 가치의 상실, 또는 핵에너지 사용의 영향과 같이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 한 지역의 ()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5항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이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자원이며, 다른 인권들의 행사의 조건이 되는 ()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186항 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모든 관련 계획은 ()되거나 ()되어야 합니다.
- 187항 그 어떤 경우든 ()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보가 축소되어 새로운 판단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88항 저는 특정한 필요나 이념이 공동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솔직하고 ()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 189항 가. 제도 전체의 검토와 개혁을 위한 확고한 결의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은행을 규제하고 그 부담을 ()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의 절대적 지배를 재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 흔히 상품에 그 실제 가치에 일치하지 않는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적 변수들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종 특정 상품의 ()을 초래하고, 환경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며 지역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8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분	과	송	이	윤	랑	세	열
기	낭	잉	웁	련	참	새	린
샌	본	은	생	륜	여	발	토
방	삶	권	폐	산	룻	표	론
송	롤	의	주	나	환	고	리
이	국	물	질	모	경	냥	유
수	면	민	사	웁	영	닭	단
일	정	제	위	개	향	요	중

6월 당첨자

함창숙 에우프라시아(영양 본당) 이정숙 엘리(문경 본당 당포공소)

이정희 글라라(예천 본당) 박은주 프란체스카(용상동 본당)

자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4 - 동 살리기 5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가축 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들은 가축 똥을 청소하면서 열심히 메탄가스를 뿜어내고 이 메탄가스를 태워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가축 똥의 양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 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 과정에서 열도 발생합니다. 가축 똥오줌을 발효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이런 발전 방식을 바이오 가스 열병합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와 열을 생산한 후 더 이상 메탄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발효가 다 된 가축 똥은 왕겨와 톱밥을 섞으면 쓰레기가 아니라 질 좋은 퇴비로 다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축 똥에는 질소, 인산, 칼륨 등 주요 비료 성분과 식물생육에 필요한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바이오가스 발전은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주역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 설치의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축의 똥오줌과 각종 음식물쓰레기, 풀 등을 함께 집어넣어 발효시키는 발효조 탱크와 메탄가스 저장소, 그리고 발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가축의 똥오줌의 양에 따라 발효조나 가스 포집소의 크기와 발전기의 용량만 다를 뿐입니다. 발전소 주인은 가축의 똥오줌과 풀과 기타 다른 유기물질을 넣어만 주고 발전기를 점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박테리아가 알아서 다 해 줍니다. 지구 가열화를 증폭시키는 가스를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면서 동시에 수질 오염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된 전기를 팔아 돈까지 벌 수 있습니다. 발효에는 청소부 박테리아의 기호에 따라 저온발효와 고온발효가 있는데 고온발효 때 메탄가스의 발생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겨울에는 발생 되는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약 30% 정도를 발효조에 열로 공급해줍니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0년까지 바이오가스 전기를 전력회사가 사 주고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시설보다 새로 설치한 바이오가스 전기에 대해 조금 더 비싸게 사 주는 곳도 있고, 2배나 더 가격을 책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늘어 가고 있으며, 한 예로 충남 홍성군 원천에너지 전환센터라는 곳에서는 돼지 똥오줌을 기반으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세워 하루에 돼지 똥오줌 110톤을 처리하고 시간당 430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가스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과 더불어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일석십조의 가축 똥오줌 해결책

가축들마다 하루에 배출되는 똥오줌은 차이가 나지만 한우는 30리터, 젖소는 40리터, 돼지는 5리터, 닭은 0.2리터 정도 됩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수(닭,돼지,한우,젖소,오리)는 2억 860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들이 배출하는 똥오줌은 하루에 약 16만톤 정도 되기 때문에 생명 산업인 축산업이 농업과 함께 잘 관리되지 않으면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어 상수원수의 수질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배출하는 똥오줌을 전기와 열로 전부 바꾼다면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의 똥까지 바이오가스로 발전을 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더 확대한다면 조만간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모두 중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더 늦기전에 가축 뿐만 아니라 사람의 똥오줌도 전기와 열, 그리고 퇴비로 바꾸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전기와 열, 퇴비가 생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고, 정화비용 및 각종 폐수처리 비용도 사라질 수 있고, 음식물처리 비용도 사라질 수 있고, 오존층 파괴도 줄이고, 나아가 지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인 지구 가열화 속도 또한 늦출 수 있는 일석십조의 똥오줌 해결책을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똥오줌을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밥을 지어 먹고, 전자제품을 돌릴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지구의 미래 또한 밝을 수 있습니다.

남성동 본당 제대 십자가 (1960년대, 가로 24.6cm * 세로 35cm)

니콜라오 성인의 이 액자는 나무판에 성화를 그리고 그 위에 동판을 얹어 뿔새김하여, 밑면의 니콜라오 성인의 얼굴과 손 그리고 좌우 모서리에 성모님과 예수님의 모습만을 드러나게 하고, 의복과 후광 그리고 뒷배경은 동판을 두들겨 부조로 만든 것이다. 액자는 유리문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유리는 없고 틀만 있는 상태이다. 성인은 4세기 로마제국 미라 지방의 대주교로서, 270년 소아시아의 파타라에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찍 양친을 여의어 많은 상속을 받아 그 재산을 모두 자선사업에 사용하였다. 12월 6일이 축일이며, 성탄 때 선물을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의 본이 된 인물이다. 액자는 함창본당에 있던 것으로 지금은 교구청에서 보관중이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

김홍식 요한
하망동 본당 '만남의 집' 봉사자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료급식소 '만남의 집'에서 28년간 책임 봉사자로 활동해 온 하망동 성당의 김홍식 요한입니다.

만남의 집

1992년 본당 사목 계획으로 불우 이웃과 번개시장 행상인을 위해 월 1회 무료급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곧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해 4월 27일에 '만남의 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 홍보 활동을 통해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 봉사자를 모집하여 급식 및 거동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도시락 배달 봉사로 확대되었고 알뜰시장을 개설하여 급식소 이용자를 위한 의류 무료보급, 목욕 봉사, 어르신 옷놀이 등을 개최하여 단순히 한 끼 해결을 넘어 더불어 사는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봉사의 길

1968년 배세영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휴천동 성당에서 하망동 성당이 분가해 나오면서 사목 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하망동 성당의 위치가 오일장이 서는 곳에 있어서 불우이웃과 행상인들의 식사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급식을 본당에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수용되어 안동 교구에서는 처음으로 무료급식소인 '만남의 집'이 설립되어 봉사자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장 보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영주 전 지역에서 오십니다. 더러는 혼자 챙겨 드시기 어려워 형편이 괜찮은 어르신들도 오셔서 드시고는 자녀분들이 감사해하며 후원해 주기도 합니다. 식사 준비를 위한 직원은 2명뿐이어

서 많은 수의 봉사자가 필요한데 갑자기 봉사자가 부족한 날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치 주님께서 보내시는 듯 봉사자가 달려와 도와주신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당 레지오팀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니어 클럽 등 영주시내 각 단체에서 봉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뿌듯함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 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여건의 초등학교 학생 약 150명분의 도시락을 학교로 배달한 일입니다. 당시는 학교 급식이 시행되지 않아 배달된 도시락을 받고 기뻐하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시작할 때는 가건물을 지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2006년 10월에 신축을 결정하고 다음 해인 2007년에 당시 비어있는 구 교육청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11월에 준공검사, 12월에 축복식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안함

28년간 만남의 집을 맡아 앞장서 일하면서 그간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같이 병원에 가 주지 못해 지금도 가끔 원망 섞인 푸념을 듣곤 합니다.

공경하올 어머니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봉사를 28년간이나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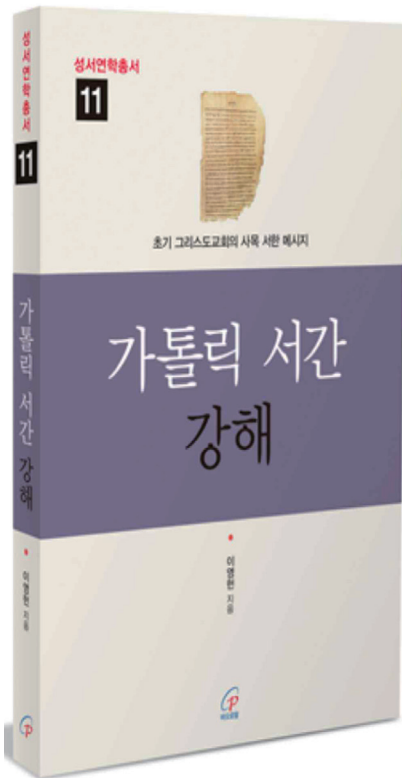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제 삶의 고비에서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모님께 기쁨과 공경을 드립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가톨릭 서간 강해

이영헌 | 400쪽 | 23,000원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사목 서한 메시지를 담은 가톨릭 서간 주해서로 열한번째 성서 연학총서 시리즈. 일곱 권의 가톨릭 서간 (야고보, 베드로1/2, 요한1/2/3, 유다)의 저자와 수신인, 집필 동기와 목적, 신학적 주제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가톨릭 서간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주해하며 말씀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를 시냇물처럼 전한다.

수신인이 어느 특정 교회 공동체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어 “가톨릭 서간”이라고 한다. 원로사목자로서 꾸준히 책을 쓰며 강의하는 저자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자의적 해설을 덧붙이지 않고 성경 원문을 토대로 충실하게 주석하여 가톨릭 서간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김유강 시몬 신부
풍양 농촌 선교 본당 주임

“그대는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위의 질문은 사제 서품식 중 서약을 위한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일에 절대적으로 존경과 순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제에게 순명(順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명이 없으면 신심 생활로 매진하겠다는 모든 노력이 헛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진보를 바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 덕목은 “순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위에 있고자 하는 욕망이 커서 요즘 사회에서는 모두 남의 명령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복음적 순명”은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덕목처럼 보입니다. 순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명령에 복종함’이라고 정의하지만, 복음적 권고의 순명은 하느님께 응답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존중되지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노력 가운데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과 사랑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순명에 대한 의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제가요?”, “제가 왜 그것을 해야만 하죠?”,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순명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오로지 각 개인의 존중이 무시되었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응답을 못할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누구나 자기 뜻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면 우리는 때때로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제는 어떻게 순명해야 하는가? “순명해!, 그냥 순명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명해!” 이런 맹목적인 순명 역시, 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순명이 부족하면 장상의 명령에 대해 불순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해서 맹목적인 순명 역시 참된 순명은 아닐 것입니다. 장상 때문이 아니라 장상의 권한은 하느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순명이 참된 순명일테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 개인의 생각이 우선시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순명의 정신을 기르는 차원에서의 무조건적인 순명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은 천주를 근원으로 하고 천주께서 원하신 것’이므로 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순명을 고수해야 합니다. 순명의 삶은 우리를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상이 어딘가로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자며 로마에 오라고 하면 우리는 로마에 가야 합니다.

이제 8월에 있을 사제 인사이동. 어느 분은 그 자리에 머물 것이고, 또 어느 분은 어디론가 가야 할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사제와, 보내야 하는 신자분들에게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달려가야지요. 그것이 사제의 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1사무 9,8)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이민우 테오피로
연구2, 봉화 본당

2025년 1학기를 마무리하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 동기가 저에게 다가와 “행님 이번 방학이 마지막 방학입니다.”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직 방학이 세 번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대답했습니다. 그 동기는 “아니 평신도로서 마지막 방학이라고요.” 저는 동기의 말에 부제 서품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진짜 가까워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성소의 길에 대해 한 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성소의 여정에 있어서 하느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두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법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 하느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때도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고,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제품이 가까이 다가오니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 길이 내게 맞는 건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하느님께 의탁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두고 오롯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고 또 바라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부족함을 하느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저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를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이끄시어 아버지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실에 모셔진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학교 생활을 이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느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그분을 따르는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드리고 또 기도한 대로 실천할 때, 그분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하느님과 교회가 허락하여 부제품을 받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신자분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성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신학생 6월 모임

6월 15일(주일) 진안리 성지에서 예비신학생 6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모임에서는 예비신학생과 부모님들이 다 함께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인 첫 신학생이기도 했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뒤를 잇기 위해 준비 중인 예비신학생들을 위한 주교님의 안수 축복과 십자가 수여 때는, 모두 함께 뜨거운 박수와 큰 환호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신학생 하계연수

6월 26일(목) - 27일(금) 1박 2일 동안 교구 신학생들이 모여 하계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북면성당에서 이루어진 하계연수에서는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는 주제 아래, 방학 동안 교구 행사 및 본당 행사 지원으로 휴식의 시간이 부족할 신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서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 림

1. 2025년 초등부(4~6학년) 성소자 캠프

일 자 : 8월 5일(화) - 6일(수)

장 소 : 우곡성지

2.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타교구 개인					
가 은	647,000	강윤순	5,000	이정숙	20,000	박영신	10,000
계 림 동	584,000	권양일	10,000	이호숙	10,000	백형숙	10,000
공 검	117,000	김건화	10,000	장희익	40,000	신미란	10,000
다 인	104,000	김경란	10,000	정경자	20,000	양수모	10,000
모 전 동	679,000	김경란	10,000	정재식	50,000	이길선	10,000
목 성 동	1,655,000	김경림	5,000	정태진	20,000	이영섭	20,000
문 경	377,000	김경수	50,000	조기섭	20,000	전정희	5,000
송 현 동	3,700,000	김근희	5,000	조원준	10,000	정옥남	10,000
안 계	468,000	김길자	50,000	최경희	20,000	최은정	10,000
울 진	820,000	김은경	10,000	최영옥	10,000	최인숙	10,000
의 성	1,377,000	김정은	20,000	탁인자	30,000	현희성	10,000
함 창	479,000	김현정	20,000	황상호	30,000	황재혜	5,000
		김혜경	10,000	월모임편		성분도치과	
		교구 내 기타		박승철	10,000	강면식	20,000
김정현 신부	10,000	박종대	10,000	고인숙	270,000		100,000
백동수 신부	10,000	변진의	10,000	설영숙	30,000	안동신협	
서동호 신부	20,000	서효식	30,000	윤동진	50,000		100,000
안영배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이순연	40,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조영인	50,000	은총의 거울 Pr	
정양모 신부	100,000	신용찬	50,000	최금주	50,000		25,000
정철환 신부	10,000	안명숙	20,000	이길선편		정의의 거울 Pr	
김정란	20,000	안명희	30,000	강명희	5,000		20,000
박경순	20,000	안안택	10,000	권순옥	10,000		
박보라	10,000	위은숙	10,000	김중향	5,000	향주삼덕회	
서영림	10,000	유병현	10,000	김지은	10,000		20,000
신동섭	10,000	이귀호	10,000	나양수	30,000		
이가엘	10,000	이임영	3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아메
아이와 함께 하는 제 삶을 보듬어주시고 지켜주소서.
~나와 나의 아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메

주님, 제 아이와 저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금영
제 삶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메

주님, 제 아이와 저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메

주님, 제 아이와 저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